



6천 5백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

강화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5회 연속 우수 기관 선정



강화군청

강화군이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매년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집행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23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및 3·4분기 소비 투자 분야에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특별교부세 6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투자사업 추진 현황 관리 ▲혁신 재정 운영 ▲집행 부진 사업분석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하반기 우수(8천만 원), 2022년 상반기 우수(4천7백만 원), 2022년 하반기 최우수(1억 원), 2023년 상반기 우수(5천만 원)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2023년 하반기에도 우수(6천5백만 원) 단체로 선정돼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2024년에도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으로 지역 민생경제를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퇴역함정 마산함, 호국·안보 관광명소 조성

강화함상공원 정식 개장, 4월 2일부터 정식 운영 **유료화**



외포리에서 부활한 퇴역함정-강화함상공원 정식 개장

강화군이 외포리에 조성한 '강화함상공원'을 오는 2일부터 정식 운영(유료화)한다.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임시 운영(무료) 기간을 거쳐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해 정식 운영을 준비해 온 것이다.

강화군은 퇴역함정 마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군수품(군함) 무상 대여해 지난 2022년 12월 해상 거처를 완료했고, 함정 내부를 전시해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강화함상공원은 무엇보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군이 군함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각종 전투 장비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함 내부에는 함장실, 조타실, 전투정보실, 통신센터, 76mm 상비탄약고 등을 재현했고, 외부에는 76mm 함포 2문, 30mm 함포 4문, 하푼 미사일, 청상어 어뢰, 미스트랄 발사대 등을 전시해 군함의 위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강화군은 외포권역에 강화함상공원, 종합어시장, 어촌뉴딜300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운영안내	하절기(3월~10월) 10시~18시 동절기(11월~2월) 10시~17시까지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개인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군인 1,400원 ▲어린이 700원 70세 이상 노인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 강화군민 및 유아(6세 이하) 등은 입장료가 무료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 강화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강화군 인구위기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보고회

강화군은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부서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인구위기 현황 분석과 향후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전 조직 공동 대응을 모색

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강화군 인구 동향과 심각한 초고령화 ▲학령인구 절벽 문제 ▲지방소멸 위험 고조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부 추진 정책 및 타 지역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나, 강화군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1990년대부터부터 지속적으로 폐교가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24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한편, 2023년 강화군에서 태어난 영아는 총 223명으로 강화군 전체 인구의 0.33%이다. 2024년 미취학 아동은 1,565명으로(0~3세: 766명, 4~6세: 799명) 강화군 학령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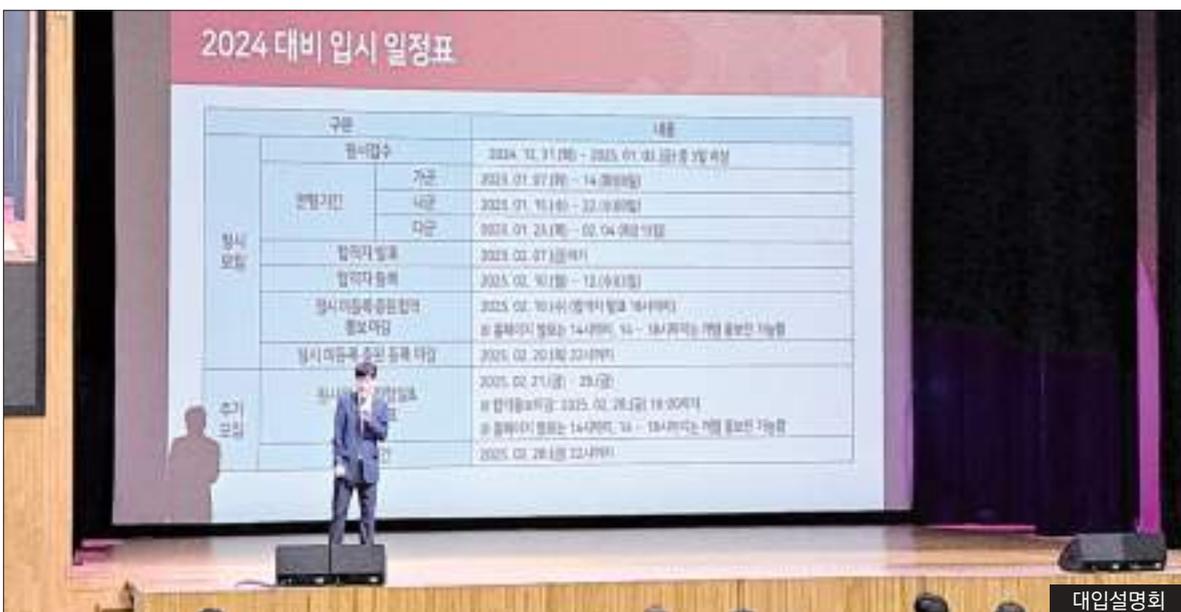
이에, 강화군은 작년 「2023 강화군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및 인구 여건 분석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전략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인구감소 문제는 일자리 및 주거·교육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니,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문가에게 듣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강화군, 202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3월 학력평가 분석, 수험생 로드맵 등 구체적 강의 진행



강화군이 13일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202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시설명회에는 대한민국 대표 대입 전문가인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과 박현욱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전형별 입시전략 ▲ 변화하는 대입전형의 특징 및

대비 방안 ▲자기 주도적 진로, 전공 탐색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특히 3월 학력평가 분석과 수험생 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강화군은 이번 첫 번째 입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전형 일정에 맞춰 7월과 11월 입시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강의는 시기에 맞는 내용 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입시 전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강화군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이번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산불예방으로 산림·재산·생명 보호

산불예방 행정력 총동원...공무원 산불진화대·담당구역제 추진



산불진화 시범훈련

매년 봄철이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화군에서도 지난해 마니산에 큰 산불이 발생해 약 22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군은 드론 예찰, 공무원 산불진화대 편성 등을 추진하며 선제적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 영농부산물 소각 사전차단

최근 10년간 강화에서는 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약 30.76ha이다. 그중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4건으로 발생한 원인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 소각 산불 평균 비율인 29%보다 높은 수치다.

강화군은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영농철이 되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농림, 환경, 산림 부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며 소각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58명과 전문예방진화대 21명 등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집중 감시체제 돌입

산불은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초동 진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군은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집중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13개 읍·면에 공무원 담당구역제를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읍·면별로 공무원 4명을 2개 조로 편성해 산물취약지와 산림 인접지 등 순찰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AI 산불예찰 드론을 활용하여 24시간 산불 집중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드론이 실시간 산불 감시를 하고 산불 감지 시에는 즉시 상황실에 알려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 4월에는 청명·한식뿐만 아니라 식목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그물망 감시를 추진하고 있다.

산불진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으로

안전한 산불진화

산불 진화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들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진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진화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산림·재산·생명 보호...산불예방은 우리의 의무



산림·재산·생명 보호...산불예방은 우리의 의무



산림·재산·생명 보호...산불예방은 우리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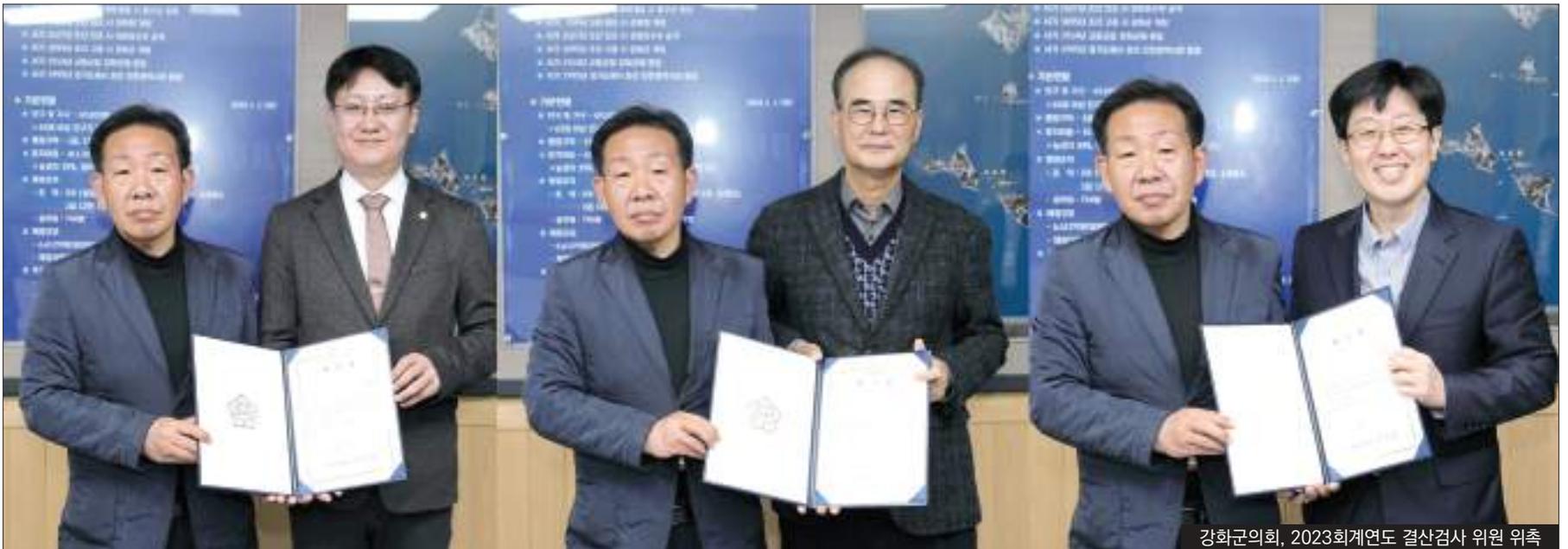
이제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편성해 실제 진화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산불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통한 진화 능력 향상을 꾀하고, 산불 발생 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산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점점 예측하기 힘든 장소와 시간에 대형화·동시다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은 산불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열 감지 드론은 물론 디지털 무전기와 GPS 단말기를 확충하여 진화장비를 현대화하고 안전화 및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확충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인천시 산림의 44%, 강화군 전체 면적의 43.17%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산불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입산 시 화기 물질 소지를 금지해 주시고, 영농부산물은 읍·면에 신청하여 파쇄기로 처리하고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한승희 대표위원 등 3명 위촉, 20일까지 결산검사 시행 강화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강화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을 비롯해 황운연(공인회계사), 허제필(공인회계사) 등 총 3명이다.

한승희 대표위원은 “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한 의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자세로 결산검사에 임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강화군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강화군,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기념행사 벚나무, 철쭉 등 2,070여 주 식재, 고인돌 유적지 경관을 아름답게



식목일 나무심기



식목일 나무심기

강화군은 지난 5일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식재된 나무들은 봄이면 꽃들이 만개해 고인돌 유적지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황순길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강화군 산림조합 등 40여 명이 참여해 복숭아나무, 벚나무, 철쭉 등 유실수와 화목류 2,070여 주를 식재했다.

한편, 강화군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군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수목 구입 후 나누어 주며, 나무 심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황순길 도시건설국장은 “나무 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군민들께서도 나무 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식목일 나무심기

바란다”며, “또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도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부르면 바로 달려간다!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대기 없이 즉시 방문 가능...취약계층 민원 사항 무상 해결

강화군이 4월부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한다.

강화군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2021년 11월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평균 850가구, 2,50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량을 한 대 더 추가해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3인 1조 1개 팀에서 2인 1조 2개 팀으로 변경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맡고 당일 접수된 내용을 즉각 처리한다.

이전에는 민원을 신청하면 1~2일가량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청 후 즉시 방문이 가능해져 군민들의 만족감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기별 1회 방문했던 도서 지역(주문도·불음도·미법도)에도 월 1회 순회 서비스를 추진해 도서 지역 군민들의 생활민원 처리에도 힘을 예정이다.

더불어 군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기동성을 활용해 단군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사업과 협업해 민원 처리 방문 시 민원인의 특이 사항이 발견되거나, 이상징후가 보이면 즉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 수도꼭지, 문고리 교체, 방충망 설치 등 5만 원 이하의 생활불편사항을 무상으로 방문 수리해 주는 서비스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유선 ☎ 032-930-3391, 3392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부르면 즉시 달려간다!...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부르면 즉시 달려간다!...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강화군, 어선 합동 점검 실시

어업활동 활발한 봄 맞아 어선 점검과 해상 홍보에 총력



봄철 어선 사고 점검

강화군은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4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등록된 일반 어선 및 낚시 어선 360여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레이더, 위치 발신 장비 작동 여부 등 항해·무선설비 상태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유류 보관 상태 및 난방장치 등 화재 발생 요인 점검 ▲출·입항신고 이행 ▲낚시어선 승객 명부 비치 확인 등으로, 화재 및 출항 전·후 비상

대응 설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항의 경우 어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조난버튼(SOS) 사용과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운항 시 상시 경계 강화 등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어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소각 단속 강화...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청

강화군, 민간 점검원 운영 통해 미세먼지 잡는다!

강화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민간 점검원을 운영한다.

최근 영농철을 맞아 고춧대 등의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민간 점검원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민간 점검원은 군청 환경위생과 1명과 12개 읍·면에서 각 2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생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등 불법소각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농가를 방문하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로 구분해 읍·면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통한 군민들의 올바른 폐기물 배출도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민간 점검원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폐기물 배출 등의 실천을 통해 깨끗한 강화군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껍질이 부드러워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잎자루 전용 고구마 강화군, 통채루 조직배양묘 2,000주 분양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강화군, 통채루 조직배양묘 분양

강화군이 지난 1일 껍질째 먹는 잎자루 전용 고구마인 '통채루' 조직 배양묘를 분양했다. 처음 진행된 사업으로 25개 농가에 총 2,000주를 분양했으며, 농업인들의

조직배양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품종을 보급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 잎자루용으로 재배되던 '하얀미', '신미' 등의 품종은 잎자루 껍질이 질겨 껍질을 벗기는 노동력이 발생하고, 껍질에 함유된 기능 성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신품종 '통채루'는 잎자루 껍질이 부드러워 껍질째 섭취가 가능하며, 잎과 잎자루에는 비타민C, 루테인,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들 성분은 항산화, 항알레르기, 항균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읍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노 모 씨는 지난해 노지 재배로 수확한 통채루를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해 330㎡(100평)당 16,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통채루는 잎자루 껍질을 벗기지 않고 출하할 수 있어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며 "맛과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잎자루 수확량도 풍부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올해도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가능 어민소득 증가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구역

강화군은 주문도(서도면) 맨손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야간조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사 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이며,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도 여전히 주간 조업이 가능하다. 본래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주간에만 조업이 허용돼 야간에는 맨손어업 조업이 불가능했지만, 주문도가 야간에 잡히는 야생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기에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과 경인북부수협, 강화군은 야간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관할부대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턴 야간조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소라, 민꽃게,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을 통해 어획량이 증가해 어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군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규제 완화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속 “강화군의 착한가격업소 찾아요!”

오는 30일까지 신규 모집...신규 지정 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

위 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안)

강화군이 오는 30일까지 관내 개인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업체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지정된 업소이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며, 가맹 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외식업 5개소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로 총 4개소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와 적격 여부를 평가해 5월 중 최종 선정업소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 최벽하 기자

문의 ▶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참고.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 032) 930-3353

10월까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집중 방제 실시



강화군, 더워지는 날씨... 모기야 저리 가!_말라리아 현미경검사



강화군, 더워지는 날씨... 모기야 저리 가!_유문등설치

강화군이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에 나선다.

군은 기존 관행적인 방제에서 벗어나 모기 밀도 자동감시장비를 이용한 근거 중심의 과학적 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이용해 매일 모기의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방역지리 정보시스템(GIS)을 통해 해충 주요 발생지를 비롯한 취약지, 기피제 분사기 위치

등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건강검진 시 혈구분석에서 이상 적혈구가 검출될 경우 말라리아 유전자 검사를 병행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진단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강화군은 체계적인 방제 활동과 무증상 감염자의 조기 진단 등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상 해충 매개 감염병의 발생률이 높은 만큼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뿌려 매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 2024년 상반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직무교육 실시



강화군, 2024년 상반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직무교육 실시

강화군이 지난 1일, 강화군 행복센터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7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전담 사회복지사 5명과 생활지원사 70명으로 구성된 강화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사회참여, 생활교육,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직무교육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종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처 방법, 노인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 우울 검진 등 강화군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한 자살 예방 교육도 이어졌다.

2024년에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체 감지 센서등 지원’,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 북’, ‘주전자 콩나물 키우기’, 신체 건강 지원을 위한 ‘영양 플러스’, ‘우리 동네 한 바퀴’ 등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 시대,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기대 강화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설명회’ 개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설명회

강화군이 12일, 행복센터에서 ‘2024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와 읍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주택개량 사업의 절차 및 유의 사항, 사업 시행 지침, 주민 의견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 이내로 융자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20년간 분할 상환이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넓히는 시간으로 마련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평화통일 시민교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회장 김경호)가 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시민교실은 민주평통 자문위원, 지역 사회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 ▲특별강연 및 질의응답 ▲통일 한 줄 생각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종철 대전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2024년 한반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경호 협의회장은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을 발사하는 이 시점에 오늘 개최된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다방면으로 의미가 있다”며,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평화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을 위해 다양한 통일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화 지역 어르신들의 잔치 제 19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 성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

강화도 전등사(주지 여암스님)는 2024년 4월 8일(월) 오전 8시부터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공설 운동장에서 「제19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오전 10시 개막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배준영 국회의원,

유준규 강화게이트볼협회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박승한 강화군의장 등 4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은 대회사에서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면서 ‘코로나를 거치며 강화 게

이트볼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이번 대회가 강화지역 게이트볼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66개 팀 39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 끝에 삼선A 팀이 우승, 서한A 팀이 준우승을 차지 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은 ‘해마다 지역 노인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전등사에 감사하다며 20회를 맞는 내년 대회에도 꼭 참가하겠다.’라며 즐거워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무료진료와 강화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체험은 각각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되었다. 전등사에서는 국밥과 수육, 어묵탕, 부침개, 떡, 과일, 음료를 준비하여 대회 참가자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기념모자 1,000개를 선물로 전달했다.

길상면 선두5리, 식목일 맞이 강화체리1호 식수



길상면 선두5리, 식목일 맞이 강화체리1호 식수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이장 김주성) 주민들이 식목일을 맞아 강화체리1호 묘목 200주를 식수했다.

이번 행사는 해안가 나들길을 따라 강화체리1호길을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어판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수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체리나무의 활착과 아름다워질 마을 경관을 기대했다.

김주성 선두5리 이장은 “선두5리를 강화체리1호마을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차 강화체리1호가 강화군 브랜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제22대 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배준영 후보,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와 균형발전에 앞장설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에서 당선이 확정된 배준영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배 후보는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후보는 “지난 4년 간 주민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경청해,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로 받아 들인다” 라며, “이번 총선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아 정말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라고 밝혔다.

또한 배 후보는 “앞으로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라며, “책임 있는

정치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중구·영종·강화·옹진 모든 지역을 더욱 새롭게,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 후보는 “선거 기간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조택상, 구본철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큰 표 차로 앞서며 승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는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50.7%,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가 48.7%로 나타나, 2%p차의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 배준영 후보가 중구·강화군·옹진군 모든 선거구에서 앞서며, 약 1만 표 이상

큰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비교적 진보세가 강한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지난 21대 총선 대비 약 2만 명 이상 늘어 어려운 승부가 예측됐으나, 영종에서도 배 후보가 앞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배 후보는 “지난 4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한 성과들을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신 결과라 더욱 뜻깊다” 라며, “다시 한 번,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중구·강화군·옹진군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후보는 “앞으로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라며, “오직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다짐했다.

당선소감문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간 주민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정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그것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정말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 서정진 기자

읍.면별	투표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개 표 결 과					기권
				계(투표인수)	조택상	배준영	구본철	무효	
강화군 총계		62,585	44,012	44,012	15,548	27,511	435	518	18,573
	득표율			100.00%	35.33%	62.51%	0.99%	1.18%	
거소·선상투표		253	243	243	63	155	13	12	10
	득표율			100.00%	25.93%	63.79%	5.35%	4.94%	
국외부재자		165	124	124	92	29	3	-	41
	득표율			100.00%	74.19%	23.39%	2.42%	0.00%	
사전투표(관외)		4,892	4,888	4,888	2,153	2,599	88	48	4
	득표율			100.00%	44.05%	53.17%	1.80%	0.98%	
사전(관내)+본투표		57,275	38,755	38,755	13,238	24,728	331	458	18,520
	득표율			100.00%	34.16%	63.81%	0.85%	1.18%	

기고

이경수

강화 역사와 강화박물관



강화박물관

다시, 봄입니다

꽃이 피었다고 봄이 아닙니다. 저에게 봄날은 내 북 벗은 날,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 벗었으니 진짜 봄입니다. 봄맞이 관광객이 강화로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휴일이면 교통 체증이 심해집니다.

어디 좀 가려면 차가 막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운전대 잡고 혼잣말하게 되죠. “뭘 볼 게 있다고 이렇게들 내려오나.”

우리 눈엔 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일상의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강화를 찾는 이들에겐 산, 바다, 갯벌이 다 멋진 볼거리입니다. 설사 볼거리가 없다 해도 여전히 강화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김포 장기동 사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강화대교 건너는 순간 코가 뺨 뿜려.” 진짜 그러냐, 기분에 그런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확 다르다는 겁니다. 맑은 공기만 실컷 마시고 가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강화의 가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더해서, 강화 땅 구석구석 켜켜이 뱀 역사의 숨결과 문화유산은 화룡점정이라 할만합니다.

문화유산 풍성한 역사 도시, 그러면, 대개 경주를 떠올립니다. 경주는 정말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소중한 역사 공간입니다. 저는 경주에 갈 때마다 부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경주 남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주는 거의 신라에 국한됩니다.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거기는 다 신라의 무엇무엇입니다.

강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두루 연결되는 각종 역사유적에 굽적한 사

건과 인물들까지. 참 다채롭습니다. 강화의 역사만으로 한국사 서술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가진 곳이 강화 말고 없을 겁니다.

역사의 섬 강화도

대략 볼까요.

남한에서 제일 큰 탁자식 고인돌, ‘강화 부근리 지석묘’를 비롯해 수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 강화의 위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고조선 단군 관련 유적이 있습니다. 마리산 참성단과 삼랑성이지요.

전등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사찰로 말해집니다. 정수사, 보문사, 백련사, 청련사, 적석사도 삼국시대에 세워집니다. 강화의 사찰들을 통해 고대시대 불교의 유입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대몽항쟁의 중심으로 빛납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몽골과 맞서 수십 년간 항쟁할 수 있었던 근간은 강화 천도였습니다. 덕분에 고려를 지켜냈습니다.

강화도읍기에 팔만대장경이 조성되고 금속활자 인쇄도 이루어집니다. 강화에서 발굴된 청자 상당수가 국보이거나 국보급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흥릉을 비롯한 고려 왕릉이 여럿 존재하는 것도 강화만의 특색입니다. 대규모 간척도 강화도읍기 강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나라 간척사 분야에서도 강화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조선시대 삼포왜란을 진압한 황형과 임진왜란을 이겨낸 권율이 강화 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강

화도는 한양을 수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의병과 관군에 명나라군까지 강화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강화를 통해 임금의 지시가 전국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정묘호란 때는 인조와 조정이 강화로 피해와 위기를 넘겼지요. 병자호란 때는 청군에게 점령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강화가 무너지면서 남한산성의 인조 조정은 청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강화에 진·보·돈대, 강화외성, 강화산성이 세워집니다. 정족산성 안에는 정족산사고가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을 모시게 됩니다. 외규장각에는 의궤를 비롯한 나라의 귀한 책을 모셨습니다.

강화는 또 ‘유배의 섬’으로도 주목받습니다.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유배지가 강화였습니다. 이외 많은 왕족이 강화에서 유배 살았습니다. 이원범은 강화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임금으로 즉위해 철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 전쟁을 치른 곳이 또한 여기입니다. 프랑스와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를 겪었습니다. 강화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나라를 지키는 교두보가 되어 힘을 다해 싸웠던 현장입니다. 윤요호 사건은 초지진 앞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 강화”

몇 해 전에 강화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쓴, 강화 역사와 문화유산을 다룬 첫 책의 제목도 《역사의 섬 강화도》입니다. 강화의 독특한 역사성에 주목해서 썼던 책입니다.

이러한 강화만의 매력을 알아보고, 강화의 역사와



굴암돈대



이규보 묘

문화를 직접 느끼려고, 강화를 찾는 이들이 전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

“한번 보고 가득한 회포를 풀고, 두 번 보고 천 년 역사를 알만한 강화! 우리가 원하여 보고자 하는 강화! 우리가 기어코 가야만 할 강화!”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가자봉인’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잡지 《개벽》에 실은 글의 일부입니다. 가고 싶은 강화가 아니라 ‘기어코 가야만’ 하는 강화였습니다.

강화의 이미지

강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의 역사를, 문화유산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작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동네에서 가까운 문화유산부터 산책 삼아 찾아가 보세요. 바람에 실려 오는 역사의 내음을 음미해 보세요. 어디든 가서 살피다 보면 뭔가 궁금해집니다. 조금씩 공부하며 알아가면 됩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정보가 무궁합니다. 책을 통해 강화를 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화도서관에 강화를 풀어낸 책들이 많습니다. 강화도 관련 도서를 따로 모아놓아서 보기도 편리합니다.

몇몇 기관에서 강화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강좌를 진행합니다. 시간 사정에 맞는 강좌를 찾아 참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 때는 공부가 지켜왔어도 나이 들어 찾아보는 공부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에 써먹겠다고 공부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공부에 대한 끌림이 있을 겁니다. 제 친구 장모님이 내가면 사시는데요, 아흔 다 된 분이 손자에게 부탁해서 알파벳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뭐에 써먹으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게 A라는 글씨구나, B는 이

렇게 쓰는 거구나. LOVE, 러브, 이게 사랑이지? 새로 알아가는 재미를 맛보신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얇이 쌓이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행복합니다.

외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강화의 관광지는 전등사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전적지(戰迹地)로 불리는 국방 유적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초지진, 광성보 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성보 등을 찾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30여 년 전, 제 첫 직장이 경상남도 마산에 있었습니다. 남한 땅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산 하숙집 아주머니도 광성보 안해루 앞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강화는 조선시대에만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격전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적지’의 이미지가 합해져서 강화의 인상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무(武)로 다 설명되는 섬, 문(文)이나 문학(文學)과는 거리가 먼 섬, 강화도!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조선 양명학 즉 ‘강화학’의 자궁이며 심장이 이곳이고, 금속활자와 팔만대장경을 탄생시킨 곳이 또한 여기입니다. 이규보 문학이 꽃핀 곳이 강화였습니다. 특히 정제두부터 이견창 등으로 이어지는 강화학파는 강화도 정신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규보가 강화 사람인가?

예, 강화 사람 맞습니다. 강화에서 태어난 사람만 강화 사람이 아닙니다. 살거나 살았거나 이 땅에 잠든 이가 모두 강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의병장 중봉 조현은 김포 출신입니다. 지금 김포시는 조현을 김포의 인물로 추앙합니다. 중봉도서관, 중봉청소년수련관, 중봉문화제, 중봉문학상. 호칭만 보아도 김포에서 조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옥천군도

조현을 옥천의 인물로 꼽습니다. 조현의 묘가 옥천에 있습니다.

강화문학관

읍내에 강화문학관이 있습니다. 강화가 문무(文武)의 조화와 융합을 바탕으로 나라의 생명줄을 이어온 땅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2010년 7월 6일에 개관했으니, 올해로 벌써 14년 됐네요.

1층은 강화 역사 인물의 생애와 문학작품 등을 소개했고요, 2층은 강화 출신 수필가인 조경희 선생의 작품과 그분의 기증품을 전시합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강화문학사의 열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철, 권필, 김상헌... 거기 소개된 이들의 이름만 보고 나와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공부입니다.

강화문학관은 읍내 답사의 중심지에 위치합니다. 고려궁지, 용흥공공원, 성공회 강화읍성당, 용흥궁이 강화문학관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답사객 대개가 강화문학관 앞에서 원도심 답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강화문학관은 강화의 첫인상입니다.

인물 선정이 적합하고 게시 내용도 충실합니다.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들어낸 이들의 고민과 정성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십여 년 지난 이제는, 개선의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1층, 역사 인물을 소개한 공간의 자료 배치가 너무 평면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입체감을 살리는 쪽으로 고급지게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2층에 자그마한 세미나실이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각종 문학 행사가 펼쳐지던 곳입니다. 저도 정호승 시인 강연을 이곳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실은 전시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민에게 닫힌 공간이 된 셈입니다. 세미나실을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 외벽을 포함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외관을 더 보기 좋게 바꾸고 내부 공간을 넓혀서 내실 있게 꾸미는 방안이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제 맘대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3층으로 증축된, 외관도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된, 강화문학관! 외지 탐방객들이 문학관 앞에서 하차합니다.

“와, 저 건물 뭐야, 멋진데”

“강화문학관이래, 들어가 보자.”



정축산사고

기고

‘보수의 성지’ 다시 확인... 배준영 당선인은 강화에 각별히 신경써야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복수혈전’ 같았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 당사자였던 각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와 민생은 뒷전이였다. 그들은 오직 ‘누구를 반드시 거꾸러트려야 한다’ ‘누구는 꼭 감옥에 가야 한다’ ‘범죄자를 여의도로 보내서는 안된다’ ‘성상납을 했다’ 등의 막말을 토해내며 죽자사자 서로를 물어뜯기에 혈안이 이었다.

선거를 앞서서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이기고 지는 단순 심판이 아닌 저주와 증오, 악담에 가까웠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동산 의혹도 모자라 ‘아빠 찬스’ ‘역사의 식 부재’ ‘여성 비하 발언’ 등 수준 미달의 출마자들이 넘쳐났다. 이같은 선거가 과연 국민의 삶과 나라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였다. 국민에게는 정치 혐오와 환멸만을 가중시켰다.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나 민생 대결은 없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네 편내편만을 가르는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들이 투표장까지 찾아가 투표를 해야하나 하는 비판론도 적지않았다. ‘선거는 민주주의 잔치’라는 문구도 다시 되돌아보게 했다.

어찌됐던 알맹이없이 요란했던 선거는 끝나고

각당은 성적표를 받았다.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고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은 절망했다. 인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초강세였다. 14석 가운데 12석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중동강화 옹진군과 동구미추출구를 두 곳만 간신히 건졌다. 그나마 동구미추출구일은 초접전으로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보수의 성지’인 강화는 지난번 표심과 다르지 않게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를 또 다시 선택해 당선시켰다. 배후보는 7만8408표(54.99%)를 얻어 6만2582표(43.8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1만6000여표차로 제쳤다. 배후보는 이번에는 선거구인 중구·강화군·옹진군 세 곳에서 모두 조후보에 승리했다. 강화군은 배후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 강화에서 배후보는 2만7511표(63.25%), 조후보는 1만5548표(35.74%)를 얻었다. 강화에서 배후보가 무려 1만2000여표를 더 얻었다. 강화 주민은 강화읍을 포함한 13개 읍면에서 모두 배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다.

강화 유권자들은 이처럼 배후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제는 배당선인이 강화 주민들에게 행동으로 답해야 할 차례다. 배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구·영종·강화·옹진을 더욱 새롭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말이다. 배 당선인은 후보 당시 강화과 관련한 선거 공약으로 ▲강화~영종대

교 조속 건설 ▲강화까지 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을 내걸었다. 주로 교통 문제이다.

강화는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섬이다. 서울에서 들어오려면 강화대교를 통할 수밖에 없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사람들은 강화하면 우선 교통 체증부터 떠올린다. “거기가면 차막혀, 교통 지옥이야”이란 말을 절로 내뱉는다. 이같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강화는 새벽에 갔다가 일찍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야”라는 말을 서로 하게 된다. 배후보는 강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이라도 강화의 전체적인 교통 체계를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과 강화의 유일한 교통로인 강화대교는 1970년 개통됐다. 이미 5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했는가. 강화 주민들에게는 교통 못지않게 시급한 현안도 적지 않다. 주민들이 초고령화다보니 복지과 의료 시설 및 개선이 무엇보다 급하다.

이제 한바탕 시끄러운 잔치는 끝났다. 잔치판에는 치우고 해결해야 할 과제만이 남았다. 선거로 국민들은 더욱 갈라졌다. 카톡 등 SNS의 발달로 댓글 등 각자 의견이 마구 분출되면서 국민 분열은 한층 심화됐다. 과거에는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친구나 가족, 지인들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입에 담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졌다. 갈라진 민심 치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보수의 성지, 강화!
공약이행으로 민심의 치유를...



길상면, 4월 한 달간 취약계층 집중 발굴 추진



길상면, 4월 한달간 취약계층 집중 발굴 추진

강화군 길상면(면장 김재구)이 4월 한 달간 길상면 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주거, 의료 등 취약가구로 예측되는 가구를 추출하고, 유선전화 및 우편, 현지 확인을 거쳐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가구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맞춤형 급여 신청과 긴급 지원 등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한다. 또한,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소외계층이 방지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인적 안전망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 특강 및 식사 나눔 활동 강화군가족센터, 1인 가구를 위한 행복한 건강밥상



강화군가족센터, 1인가구를 위한 행복한 건강밥상

강화군가족센터 주관, 농업회사법인 전통음식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건강밥상은 1인 가구 참여자들이 전문가의 지도하에 강화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석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 대상자들이 자신만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형성하기 바란다”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 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한 건강밥상은 올해 상·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되며, 한 기수당 8명을 모집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석)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1인 가구를 위한 ‘행복한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 강화군가족센터 ☎ 032) 932-1005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학교앞 “노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요



인천강화경찰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노란색 횡단보도



양옆을 살펴요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전 보도공간을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등 10개소의 스쿨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강화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3개 초등학교(갑룡·강화·선원)를 우선 선정 10개소의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 설치했다.

또한 갑룡초등학교 후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대기하는 보도공간을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양옆을 살펴요”라는 발자국을 그려 넣어 어린이

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보행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4.12 - 4.18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중입니다.

강화도서관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안내

연체자지만 괜찮아!
-연체자 대출정지 기간 연체-
4.12(금요일)-4.18(목요일)
대상: 대흥도서관 방문 권유형 연체자
장소: 강화도서관 1·2층대독대 방문 및 전화

원화전시
<너에게만 알려줄게>
-피터 레이놀즈-
4.2(화요일)-4.30(화요일)
대상: 강화도서관 이용자
장소: 강화도서관 1층 모비

체험 행사
바느질로 만드는★
<북마크 매단 미니 에코백>
-천이랑 강사-
4.27(토요일) 10:00-12:00
대상: 성인 10명
모집: 4.11(목)-4.26(금) 도서관 방문 및 전화
장소: 강화도서관 3층 문화교실
재료비: 10,000원(당일 납부)

공연 신비한 공방, 매직발룬쇼 <아들리에> -피하드 제작-
4.27(토요일)
▶1회 (14:00~14:50)
▶2회 (15:00~16:00)
대상: 전연령 110명
[1회 공연 55명, 2회 공연 55명]
모집: 4.11(목)-4.26(금)
-도서관 방문 및 전화
장소: 강화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권장료: 무료

문의 932-8264

4.12 - 4.18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지혜의숲도서관 도서관주간행사

3.27(수) 오전10시부터 어린이자료실 방문 또는 전화 032-934-8273 신청

01 **책방**
<우리마을 도서관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지혜의 숲가 쏠대기>
바람숲, 도서관고양이와 지혜숲에 놀러오다!
4.14(일) 오후3시-5시 / 발음공간 / 전연령 신청 / 선착순 30명

02 **책방**
이런 풍화 물어봐! 미디어퍼포먼스와 풍선아트 만남
요리소리 별문쉐프의 동화이야기
4.28(일) 오후3시-4시 / 발음공간 / 5세이상 어린이 신청 / 선착순 40명

03 **책방**
7년을 기다렸다! 연체가 특별연체 기간
"연체자지만 괜찮아~"
단 7일, 4.12(금)-4.18(목) 도서관 주간

04 **책방**
아름다운 지구와 사계절 및 조영을 작가님의
<지구 레스토랑> 원화전시회(공헌형)
4.1-4.30 도서관1층 마주침공간에서 누구나 관람 가능

날씨와 계절 상관없이 사분사분 맨발 걷기로 건강 챙기세요! 강화군, '최초' 전천후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강화군이 2일, 신정체육시설 내 전천후 맨발 걷기 황톳길 개장했다.

총길이 356m, 폭 2m로 전천후시설이 갖춰진 강화군 맨발 걷기 황톳길은 군민들이 날씨와 계절의 영향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시설 준비를 위해 휴장한다.

또한, 세족 시설과 신발 보관대, 먼지떨이기도 마련돼 있으며, 쾌적한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음식물 반입 시에는 입장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최초로 사계절 내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전천후 맨발 황톳길이 개장하면서 군민 모두가 맨발 걷기로 소통하고 건강도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강화의 명품 황톳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 '최초' 전천후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문의 ▶ 강화군체육회 ☎ 032) 933-9696 (내선1) / 강화군청 행정과 ☎ 032) 930-3226

강화군, 심뇌혈관질환 아는 만큼 관리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실 운영,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



강화군, 심뇌혈관질환 아는 만큼 관리한다

강화군이 오는 16일부터 군 행복센터 회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사전 신청 없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실은 심장 및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영양 관리, 웃음치료, 기체조, 단전호흡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또한, 4월 30일에는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채혈을 통해 간,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형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32) 930-4033
보건소 홈페이지, 강화군 모바일 건강파트너 채널 등을 통해 확인

2024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까지

납세지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강화군 농기계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피 보험 자 :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사고보장기간 : **2024.03.14.~2025.03.13.**(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료 : 강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 입 절 차 : 강화군민 전체 가입 완료

보험가입 혜택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강화군민이 농기계를 인하여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강화군민이 농기계를 인하여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만15세미만)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강화군민이 농기계를 인하여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의 범위

- 트랙터, 프락터, 보일러, 콤바인, 동력미행기, 농업을 난방기,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업을 동력운반차, 농업을 로더, 농업을 굴삭기, 권리기, 비료살포기, 곡물 건조기 등

보험금 청구 문의

- 피보험자 청구서류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최초 진단서 등
- 보험청구 문의 : ☎ 032-934-7778 (☎ 02-475-8115)
- 담 당 부 서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 032-930-3494)

『강화군 자전거 보험』혜택 안내

보험 계약사항

- 피 보험 자 :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사고보장기간 : **2024.03.14.~2025.03.13.**(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료 : 강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강화군민 전체 가입 완료

보장 범위 및 내용

- 강화군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에 일어난 사고
- 강화군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국내)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급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84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10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126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147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168일)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급	강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며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연초세 전입비용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며 구속영장명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보호를 사상케 하거나 동승자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문의

- 피보험자 청구서류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최초 진단서 등
- 보험청구 문의 : ☎ 032-934-7778 (☎ 02-475-8115)
- 담 당 부 서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 032-930-3494)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